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따스한


도움의 손길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 다

남편은 1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생사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젊을 때부터 투석을 해서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평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편이기에 그 시간을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며 가족들의 생계를 감당했지만 생활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경희의료원 이식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도 연락은 있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 이식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식이 가능하니 빨리 일정을 잡자고 했습니다. 바라던 일이었기에 기쁨이 컸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수술과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간병인을 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저는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간병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경험 많은 교수님 덕분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했지만 입원이 길어지면서 병원비 걱정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걱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회사업팀 담당 선생님이 아산재단의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을 안고 신청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산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와 남편은 큰 위안을 받고 남은 입원기간 동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따스한 관심과 아산재단의 도움 덕분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임명윤 드림

